

GANGJIN 

Web Contents



목차

목차	2
서기산	3
상서로운 기운이 감도는 서기산	3

상서로운 기운이 감도는 서기산

서기산은 강진의 서쪽에 있는 산으로 상서로운 기운이 감도는 산이다.
 혹자는 이 산을 영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강진고를 금릉팔경중의 하나인 서산낙조를 형성한 멋진 산이다.
 암릉이 전혀 없는 전형적인 육산으로 봄이면 진달래로 물들이고 등산로 주변에는 봄내음 그윽한 취나물, 고사리 등 산나물들이 지척에 널려 있다.



해발 500m / 도암면 계라리 - 강진읍 월남리 / 산행거리 16.7km, 7시간

산 안으로 파고들면 소나무와 소나무 숲이 장관을 이루고 정상에 올라서면 남쪽으로는 드넓은 녹색의 평야가 펼쳐지고 강진고을의 젖줄인 탐진강이 유유히 흐른다.

서기산 정상은 헬기장으로 조성되어 있어 사방의 조망이 훌륭하다. 동남쪽의 만덕산(408.6m) ~ 석문산(272m) ~ 덕룡산(432.9m)으로 이어지는 암릉은 힘찬 기상을 보여 준다.

돌아보면 월출산 국립공원, 흑석·가학산, 제암산등 연봉이 파노라마를 연출하고 남도지방 특유의 사스레피 나무와 곤충, 나비의 군무를 감상하기에 좋은 이색적인 낭만의 길로 이어진다.

참샘(국도18호)에서 정상에 이르는 등산로는 8.7km로 약5시간이 소요된다. 통상적인 산행코스는 참샘을 기점으로하여 헬기장 - 정상 - 임도 - 월남마을로 이어지는 코스로 구간거리가 장거리이긴 하나 경사가 완만하고 강진의 전경을 조망할 수 있어 하루산행으로 적격이다.

GANGJIN

Web Contents

